

경기도-도교육청, 작년 교육협력사업 효과 어땠나

중·고등 신입생 교복 지원 등 6개 사업, 1,596억 투입 학교 건축물 등 석면 제거 119곳 진행... 달성률 202%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달성률 100% 학생 건강권 확보도

경기도는 11일 도청 신청사에서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위원회 1차 회의(평가위원회)'를 열고 2021년 도-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평가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1천 596억여 원(도비 296억여 원 포함)을 투입해 6,905개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에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별 실적을 보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을 교실 등에서 제거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확보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을 당초 목표 59개교의 2배 이상인 119개교에서 진행했다.

소화기,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방독면, 제세동기 등을 활용한 실습·체험 위주 교육을 지원하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도 사업 대상 400개교에서 모두 추진됐다.

이외 △중·고등학교 1천226개교 신입생 24만1천여 명에 교복비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 절감 △880개교에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활동을 지원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방과 후 학습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진로 교육 경험을 제공한 경기꿈의대학 2천33개교(2천222개 강좌) 등도 원활히 마무리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올해 10월 개최될 교육협력지원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재차 논의돼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된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학교를 지원하는지를 넘어 학생들에게 그 지원이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육 사각지대를 고려한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이화진 평생교육국장, 최병길 교육협력과장), 경기도교육청(고영종 기획조정실장, 윤재철 교육협력국장, 조정수 행정국장), 최옥희 성남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서미아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교수, 이성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 회장, 최나성 안중고등학교 교사, 김경아 전국여성활동가포럼 사무국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수원/오용화 기자 ohy@hyundai.co.kr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가 의정환율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원료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의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주요 업무 자료 등 전자시스템 사용해 처리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가 의정환율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은 의회가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등 집행부로부터 제공받는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업무보고 자료 등 모든 의정자료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

축으로 시의원이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축적된 전자파일 형태의 각종 의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의회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비대면 업무 체계도 갖춰질 전망이다.

이번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은 지난달 28일 사업 완료 후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정포털 시스템(2단계) 및 의안처리시스템(3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오후 의정실에서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사업 추진결과 보고, 유튜브 영상 촬영 등 행사를 가졌다.

/김종욱 기자 kjd@hyundai.co.kr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서영삼 사장으로부터 네번째를 비롯한 임직원이 직원들을 향해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직급·연령 관계없이 먼저 건네는 아침인사"

안산도시공사 '상호존중의 날' 눈길

안산도시공사(사장 서영삼)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우월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갑질을 근절하고자 '상호존중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11일부터 직장 상사 또는 동료직원 간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1=1) 의미로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오전 사내방송과 사내게시판에 포스터를 게재해 상호존중의 날 첫 시행을 알리고 직급·연령과 관계없이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

기 △서로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사적인 부탁 금지 등 실천과제를 공유했다.

아울러 상호존중의 날 지정을 기념하고자 올림픽기념관 1층에서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도시공사 서영삼 사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이 먼저 출근하는 직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으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나아가 갑질근절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은 매월 사업장을 순회하

여 진행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갑질자가진단 테스트, 갑질 바로알기 퀴즈, 칭찬릴레이 등 전 직원이 갑질근절 마인드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서영삼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구성원들이 존중받을 때 느낀 행복감이 조직에 대한 헌신과 업무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 운영하게 됐다"며 "나이가 갑질 없는 청량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청량하고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산/정성엽 기자 bds@hyundai.co.kr

"민생 개혁, 정치 개혁" 한 목소리

민주 경기도당 필승 결의대회 공천 후보자들 모여 승리기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공천을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합승을 기원하기 위해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박정 도당위원장, 안민석·염태영·조정식·정성호 도당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관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및 경기도당 소속 공천대상 후보자들이 참석해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도민의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잔잔한 바다는 속련된 뱃사공을 키워내지 못한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말을 생각해보라"며 "어렵고 힘든 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서 민생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하여 윤석열 정부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모든 후보께서 김동연 도지사 후보와 함께 워팀 정신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며 "고등학교에 다닐 때 3당4락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공천을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격려하고 합승을 기원하기 위해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경기도당 제공)

라는 말이 있었다.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의 의미인데, 여러분께서 3당4락의 절박함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우리가) 31개 시군을 바꿔보자, 지방선거의 바로미터인 경기도가 반드시 이겨야 전국이 승리할 수 있다"며 "선두에 서서 경기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모든 후보께서 열정과 절실함을 갖고 승리를 위해서 결의를 다지고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필승결의대회에 참가한 후보자

들은 공천장을 수여받고, 도민과의 약속을 위한 '공직자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했다. 후보자들이 읽은 결의문에는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적정성 확보, 특혜·이익 취득 및 도모 금지, 성비하 발언 및 성적 언동 금지 등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결의대회 후반부에는 노래 '상륙'을 다 같이 제창하고, 필승을 결의하는 퍼포먼스 퍼포먼스와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염원을 모으는 등 박수 속에 마무리됐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ow71@hermail.net

고양시의회 신 교통대책특위, 활동 마무리

트램 사업 관련 중·장기적 예산운용 방안 등 앞장

고양시의회 '고양시 신교통수단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신교통대책특위)'가 지난 9일 고양시의회에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고양시의회 신교통대책특위는 집행부로부터 고양시 재정여건에 따른 중·장기적 예산운용 방안과 트램 사업에 대한 용역 계획 등 업무보고를 개최했으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신교통수단의 타사도 및 해외 도입 현황 등을 청취한 바 있다.

또한 '현대 로템 창원공장'의 수소 트램 시제품 견학 및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고양시에 적합한 신교통

수단 도입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특위에서 논의한 △신규 트램노선 제안 △고양시청~식사간 신교통수단 도입 계획을 넘어 1기 신도시 교통망과 연계 방안 마련 △고양시 산업기반 시설의 교통수요에 대응하며 경의선, 서해선, 3호선과 환승 시스템 구축으로 기존 교통망과 연계 △JDS 지구 조성 시 트램을 설계하여 반영 △1기 신도시 공원을 활용한 트램 노선 구축으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및 관광자원 효과 창출 △트램 건설로 인한 역세권 평공 공사시 상승률을 초과한 세수에 대하여는 고양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입하여 교통소의 지역에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고양시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채우석 신 교통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2년 여간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양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교통소외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트램 도입 시 고양시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교통대책특위는 채우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현경·김보경·김서현·박소정·양훈·정연우·정판오·조현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5월말까지 활동한다.

고양/고종우 기자 gjo@hyundai.co.kr

구리문화재단, 국도비 1억9,000만원 확보

구리문화재단이 문화진흥 분야 공모 사업 6건에 선정되어 국·도비 약 1억9천만 원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비 공모 선정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술 입문 문화예술 교육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다. 도비 공모 선정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의 '경기 예술활동 지원 사업 경기 교과 연계 교육연극 사업', '경기 시민예술학교 사업'이 선정됐다.

기술 입문 문화예술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미디어아트·인터랙티브아트·AR 등 최신 경향의 문화기술과 문화예술 교육을 연계하는 사업이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초등학교 고학년 대

상, 환경과 정원을 주제로 한 전시 그림 그리는 정원사와 연계한 복합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다.

문예회관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성인 대상, 시니어 계층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감성형과 체험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도비 선정 사업 세부내용은 경기 예술 활동 지원 사업: 예술가 및 예술단체 대상,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한다.

구리/김민지 기자 ggm@hyundai.co.kr